

07.04.2010 (주일)

만민을 위하여 기를 들라 (사 62:10)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긴 후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닛시'라고 불렀습니다. 닛시는 '나사스'(nasas)에서 나왔는데 기 또는 깃발이란 의미로 여호와닛시는 '여호와 나의 기, 여호와 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그 같은 단어가 오늘 주시는 말씀 사 62:10에서 나옵니다.

기(nasas)를 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들라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말씀이 우리의 기라는 것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들여다 볼 때 빛날 때나 어두울 때나 올라가는 때나 내려가는 때에도 말씀이 나의 기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기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그 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바람에 날리는 깃발이 아니라 제단을 기로 삼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출 17:15-16입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창 36:12에 보면 에서의 자손으로 나오는데 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가볍게, 경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창 25:34). 그런데 아말렉과의 싸움은 쉽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장면이 출 17:11에 나와있습니다.

(1) 기도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기가 세워집니다 (시 20:5).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를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기도가 우리의 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생활에서 승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깃발은 기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딤후 2:8 볼 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손은 영혼을 말하기 때문에 손을 드는 것은 내 영혼이 말씀만을 바라보면 이긴다는 뜻이며, 손을 내리는 것은 내 영혼이 땅을 바라볼 때 진다는 뜻입니다. 스 9:5 볼 때 에스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고 왕상 8:22 볼 때 솔로몬도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축복하실 때 손을 들어 축복하신 것을 눅 24:50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는 높습니다. 온 사방에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높다는 것은 고상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상합니다 (빌 3:8).

(2)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말씀의 기를 주십니다 (시 60:4).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를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깃발은 승리를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것을, 믿는 것을 행해야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승리합니다. 처음된 자로서 나중에 되는 것이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가 이기는 까닭은 자기를 낮추고 주 앞에서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계 3:5).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짐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겨야 됩니다. 각자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짐승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 13:18).

오늘 주시는 말씀 사 62:10에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를 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돌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굳은 마음을 의미하기에 우리는 이런 옛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으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을 말씀의 제단을 통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입니다 (아 2:4).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수도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능이 있다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라고 고전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를 가진 자이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닌 자입니다.

만 백성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대로를 수축하고 기를 드는 것입니다. 사 49:11 말씀에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둔우리니 했습니다! 이제 멀지않아 동서남북으로 만민이 몰려들기 때문이니

다 (사 49:12)! 악을 떠나 정직한 것이 대로입니다 (잠 15:19, 16:17)! 주께 힘을 얻는 것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시 84:5)!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사랑을 뺏기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깃발을 뺏기면 이미 진 것입니다. 하잘것없고 부질없는 세상 것 때문에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믿으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세요!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 20:31, 롬 15:4). 하나님은 자기의 승리와 영광을 짐승에게 주지 않고 말씀의 자녀에게 주십니다!